

아프리카에 진리의 등불을~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아프리카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선’ 시리즈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팔바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고,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져 자신을 드러지 않았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주일 행사와 권사회연합회 어버이날 기념 축하 행사, 청주만민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 및 성전 헌당 예배 소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안면마비가 깨끗이 치료되고, 버스 전복 사고에서 온전히 보호받은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68호 2022년 5월 1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아프리카 54개국을 대상으로 펼치는 활발한 선교와 동시에 교회 내 성도들이 변화와 치유 역사를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빛 된 교회,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담임 정명호 목사)가 지난 4월에 교회 안팎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가져 더욱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목회자들을 깨우는 MIS 강의 및 지교회 행사

지난 4월 9일과 10일, 아프리카 키시에서 MIS(만민국제신학교) 강의 및 키시 만민지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다.

9일에 열린 키시 MIS 강의(사진 1, 2)에는 키시 지역의 수강생들을 비롯 총회장 및 머리급 목회자들이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영상을 통해 만민의 사역을 소개한 뒤, 정명호 목사가 자신의 간증과 더불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영혼육’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처음 참석한 총회장과 목회자들은 “그동안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설교했다는 사실이 민망하다”고 말하며 MIS에 등록하였으며, 만민지교회로 가입하기도 하였다.

10일, 키시 만민지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예배(사진 3, 4)에서는 정 목사가 ‘영생’이란 제목으로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해 설교하였으며 총회장과 목회자들, 키시 MIS 목회자들과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창립의 기쁨을 더했다.

남선교회 주최 부부세미나와 여선교회 헌신예배

지난 4월 3일에는 남선교회 주최로, 27쌍의 부부가 정명호 목사와의 만남을 가졌다(사진 5). 부부가 하나 되어 온전한 가정 복음화를 이루고자 개최된 이 행사는 남선교회 회원들 중 아내가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되었으며, 만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24일에는 여선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신예배가 있었다(사진 6). 회원들은 성결의 복음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변화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성경 캠프’로 충만한 아동 및 학생주일학교

지난 4월 12~13일까지는 아동주일학교(사진 7, 8)에서, 14일에는 학생주일학교(사진 9, 10)에서 각각 ‘성경 캠프’를 개최하였다. 캠프는 말씀과 찬양, 세미나, 성령 충만 기도회, 에티켓 교육, 성경 퀴즈, 재능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아동주일학교 ‘재능 쇼’에서는 선톤 오티에노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선톤은 세 살 때부터 악성 빈혈로 고통을 받았으나 매달 열리는 손수건 집회 시, 정명호 목사에게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으며 온전히 치료되어 건강을 회복하였다.

한편, 학생주일학교 ‘재능 쇼’에서는 글로아 학생이 이재록 목사의 ‘십자가의 도’ 메시지와 함께 만민의 사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설교로 대상을 받았다.



SINCE 1987

만민뉴스

35th

창간 35주년을 맞아

“감사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도 바울의 선(善)_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 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로마서 9:1~3)

사도 바울은 자기 의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도 컸지요. 또 끊임 없이 탐구하며 매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성품이었습니다. 답을 낼 때까지 집요하게 궁구하며 고민하였고, 이에 따라 자아가 단단하게 형성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호탕한 성격도 있었지만, 계산이 앞서고 생각이 앞섰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 참이 아님을 깨닫자 욕의 것은 단번에 버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쌓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배설물로 여겼지요. 더욱이 한 번 받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향은 더욱 진하게 하나님께 올렸지요. 그러니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의 기반을 마련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요.

그러면 신약 시대 최고의 사도요, 권능을 베풀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1.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되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주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우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마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셨지요.

그러므로 정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죄로 인해 사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빌립 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고 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는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도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고후 11:28~29).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빌 3:18) 하며 애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각처의 교회에 다니면서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살도록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었지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 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란 사도 바울의 육적인 일가친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로서 바울을 핍박하고 훼방한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도를 증명하러 다니자 이를 심히도 싫어하며 사도 바울을 훼방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이면 그들도 따라가서 훼방하곤 하였지요. 심지어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행 23:12~13).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대신 자신이 저주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이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고백합니다. 이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지옥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승한지를 잘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도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권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큰 권능과 깊은 계시를 받았다 해도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는 마음

신약 시대 최고의 권능을 베풀었던 사도 바울은 앓은 뱀이를 걷게 하는가 하면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희한한 능이 나타났지요(행 19:11~12).

사도 바울은 이처럼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면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아지지 않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겸손히 고백하지요.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마음의 성결을 이뤘기에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도 보게 해 주시고, 하늘에서 얻게 될 상급도 알려 주셨지요.

이로써 사도 바울은 영의 것에 대해 사모함이 그 마음에 사무치도록 더해졌으며, 이에 따라 주님께서 영의 깊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에 대해, 또한 천국과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밝히 알려 주셨습니다.

그는 이러한 영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사랑도 더욱 승해졌습니다. 이 깊은 영의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

<p>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p> <p>홈페이지 www.manminnews.com</p> <p>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p>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p> <table border="1"> <tr> <td>주일 대예배</td> <td>1부 10:00 AM 2부 11:30 AM</td> </tr> <tr> <td>주일 저녁예배</td> <td>3: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td> <td>9: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td> <td>11:00 PM</td> </tr> <tr> <td>금요철야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수요예배</td> <td>7:00 PM</td> </tr> <tr> <td>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td> <td>8:30 PM</td> </tr> <tr> <td>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td> <td>9:00 PM</td> </tr> <tr> <td>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td> <td>4:00 PM</td> </tr> </table> <p>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p>십자가의 도</p> <p>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p>	<p>천국(상·하)</p> <p>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소와 상급 등 그 비밀</p>	<p>지옥</p> <p>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p>	<p>믿음의 분량</p> <p>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p>
--	--	---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했다가 은혜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지요.

3. 자신을 들리지 않는 마음

악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이 오거나 환상을 보고 비밀스러운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들리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려 하지요. 영안이 열려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영으로 정진해 들어가려 하고 자신을 들리지 않습니다. 또 깊고 비밀스러운 영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든 자신이 변화되고자 노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이었기에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깊은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룬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의 바탕 위에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가 맺혀 있었기 때문입

니다. 좋은 말도 받지 못할 사람에게에는 하지 않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혹여 실족 당할 사람이 있을까 하여 절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 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천국에 이끌려 다녀온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하지요.

바로 자신이 다녀온 천국에 대해 알려 줌으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되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스스로 영의 것을 터득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자신이 기도해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임을 늘 중심에서 인정했지요.

이처럼 자신의 의를 철저히 깨뜨린 후에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도 중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권능을 행할수록 자신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졌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신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나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임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최고의 선을 이뤄 마지막 때 영광의 도구로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획 특 집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날 기념 축하 행사 가져



아동주일학교에서는 지난 5월 1일 오후 1시, 어린이 주일을 맞아 GCN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2022 어린이 주일 행사’를 가졌다.

이날 최시온 어린이의 대표기도, 강성결 어린이의 성경 봉독에 이어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순종하는 어린이’(고후 1: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 뒤 교역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와 아동주일학교 총부장 공진희 집사의 축하 메시지에 이어 아동주일학교 예능팀의 특송, 부활절 계란 꾸미기, 그동안의 행사와 활동사진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

한편, 아동주일학교에서는 매 주일 오후 1시에 GCN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주일 활동을 하고 있다.



권사회연합회에서는 지난 5월 3일과 4일, 6일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기념 축하 행사’를 마련하였다.

연합회장 빈금선 권사의 사회로 3층 예배실에서 축하 행사가 진행되었다.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의 인사 말씀 후 우쿨렐레 연주 및 공연(김은희 권사 외 6명), 팔팔 건강 율동 및 체조(김진희 권사 외 2명)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그 뒤 부활절 기념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 출품작들을 관람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주 안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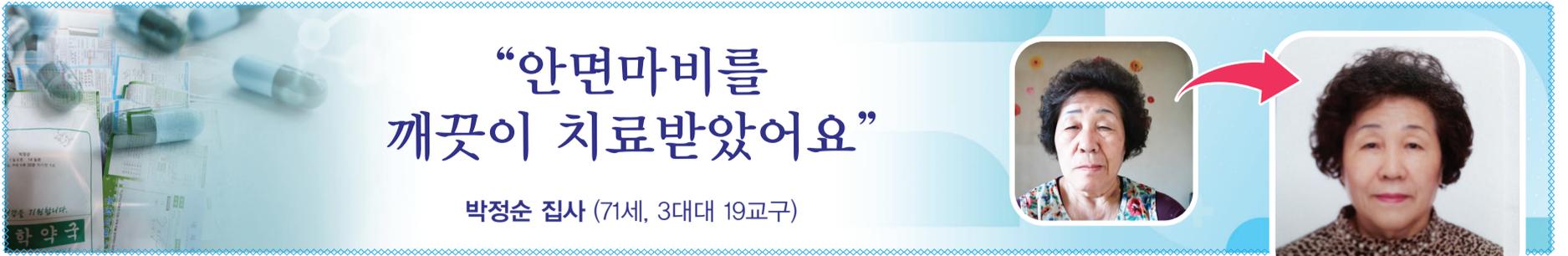
포토뉴스



청주만민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 및 성전 헌당 예배

지난 4월 24일 주일 오후 3시, 청주만민교회가 이미영 목사(교역자회 부회장)를 강사로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 및 성전 헌당 예배’를 드렸다. 청주만민교회(담임 박재영 목사)는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헌신 속에 성전을 봉헌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안면마비를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박정순 집사 (71세, 3대대 19교구)

2021년 11월, 갑자기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고 음식을 먹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얼굴을 가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꺼려져 점점 피하게 되었지요.

저는 학원 차를 운행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호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곤 하였지요.

이번에도 안면마비 증상이 보이자 서둘러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시술을 권했습니다. 일단 시술은 받지 않겠다 하고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았고 증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치료받아야겠다는 마음에 3월 은사 집회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정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면서 질병으로 인해 일

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과 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병원과 약을 먼저 의지했던 믿음 없는 모습을 깨우치며 회개하였지요. 또한 사소한 일에도 남편을 미워했던 것과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내 들보는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진행한 전 성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인 ‘당회장님 저서 읽기’와 ‘성경 읽기’ 등 순종해 완독했지만,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나니 다니엘철야는 차에서 스마트폰으로 해 충만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사 집회를 앞두고 3월에 진행된 작정 다니엘철야와 랜선 환자 기도회에는 차량 운행 중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동참하였습니다.

그동안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중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잠남 가운데 중언부언했던 것을 회개하였지요. 더욱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만민을 만나 당회장님을 통

해 귀한 성결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올바른 길로 인도받아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3월 25일 밤 11시, GCN방송을 통해 은사 집회에 참석한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 시간 내내 감사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 기도를 해주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날, 안면마비가 점차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며칠 지나자 깨끗이 사라져 온전히 회복되었지요. 할렐루야!

이제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반갑고 행복한 마음 뿐입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의 마음도 커졌지요.

저의 삶 속에 사랑과 평안, 건강과 행복을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버스가 2m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 저를 안아서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알베르도 브라보 성도 (56세, 콜롬비아 만민교회)



저는 먼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서 콜롬비아 만민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2m 아래로 버스가 떨어지며 전복되는 사고에서 온전히 지킴 받은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저는 바랑끼야에서 몸폭스로 가는 버스를 탑승합니다. 버스는 밤 11시경 출발하였는데 몸폭스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버스 기사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서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2m 아래로 떨어지며 전복된 사고였지요. 32명의 승객 중 6명이 사망하였고, 1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승객들도 부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콜롬비아 일간지 및 공영방송에 주요뉴스로 보도되었지요.

저는 항상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지요.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버스는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저를 안아서 받아주는 포근한 느낌이 들었고 어떠한 충격도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몸을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없었지요. 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사고의 충격으로 팔을 크게 다쳤는데, 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큰 사고에서 지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만민의 모든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출처: 콜롬비아 일간지 ‘엘콜롬비아노’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로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생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